

몽골語 音韻史의 몇 課題

金 芳 漢

1.

몽골語 音韻史에는 重要하면서도 未解決로 남아 있는 여러 難問이 있으며 또 最近에 비로서 提起되어 論議되고 있는 問題들도 있다. 이러한 問題中 한두 가지 問題의 焦點과 여기 대한 研究를 考察하려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1846年 Yenisei 江邊에 있는 Minusinsk 라는 村落에서 八思巴文字가 새겨진 한 조그마한 牌子가 發見되었고 Avvakum 과 Grigor'yev 는 最初로 이것을 學會에 報告하여 알려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牌子는 뒤에 Nyuki 와 Bogotol 에서도 發見되어 注目を 끌게 된다. Minusinsk 牌子에 대한 Avvakum 의 最初의 解讀에 의해서 Grigor'yev 는 이 牌子의 文字를 西夏文字로 생각 했다. 1032年 西夏의 李元昊가 西夏文字를 制定하여 公布했다는 事實은 이미 알려진 事實이었지만 그 文字가 果然大어떤 것이었는지는 當時로선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Minusinsk 牌子에 새겨진 文字가 바로 西夏文字가 아닐까 생각했던 것이다. Minusinsk 牌子에 새겨진 西夏文字가 아닌 八思巴文字는 다음과 같이 轉寫된다. ⁽¹⁾

1. dēnriyin k'uč'undur

2. moḡk'a

(1) Poppe의 轉寫에 의함. N. Poppe, The Mongolian Monuments in ḥP'ags-pa Script, Wiesbaden, 1957, p.57.

3. qa'an nere qut'uqt'ayi

2行과 3行을 계속해서 읽으면 *moŋk'a qa'an nere*가 되는데 *qa'an nere*는 「汗名」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2행의 *moŋk'a*를 汗의 이름으로 보고 다시 *moŋk'a*를 *Möngke* 汗으로 본 것이 Grigor'yev의 解釋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Möngke* 汗은 *Qubilai* 汗의 先帝이기 때문에 이 牌子의 文字는 *Möngke* 汗의 在位中 (1251~1260)에 이미 存在했으리라고도 생각했다. 이렇게 Avvakum이나 Grigor'yev는 八思巴文字의 存在를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實은 그 以前에 이미 Gabelentz는 石墨鑄華라는 中國金石文에 관한 資料에서 八思巴牌文을 確認하고 그 文字의 制作者가 *hp'ags-pa*임을 指摘한 바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Avvakum의 解讀은 Schmidt에 의해서 批判되고 그의 새로운 解讀이 發表되었다. 그는 Avvakum이 *Möngke* 汗의 이름으로 보았던 *moŋk'a*를 「永遠한」의 뜻을 가진 形容詞로 보고 이것은 *qa'an*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1행의 *dəŋriyin* (하늘의)에 걸리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러한 解釋은 Marco Polo의 말과 一致된다. Marco Polo는 그의 東方見聞錄에서 *Qubilai* 汗이 恩賞으로 軍士에 授與한 銀牌에 관해서 言及하고 그 銀牌에는 모두 「永遠한 하늘의 힘으로 우리들의 汗의 御名에 祝福 있어라. 汗을 존경하지 않는 者는 罪 짓고 죽으리라」고 쓰여져 있다고 했는데 이中 「永遠한 하늘의 힘으로」는 Schmidt의 解釋과 正確히 一致하는 것으로 注目된다. 그러므로 Avvakum의 解釋인 「By the strength of Heaven, let the name of Möngke-Khan be sacred!」는 「By the strength of eternal Heaven, let the name of the emperor be sacred」로 修正되어야 한다.⁽²⁾ *moŋk'a dəŋriyin k'uč'undur*은 틀에 박힌 상투적인 表現文句로 그 뒤 여러 資料에 의해서 確認되는 것으로서 Schmidt의 解釋에 問題 삼을 것은 없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問題가

(2) Ibid., p. 58.

남아 있다. 그것은 *moŋk'a*가 *dəŋriyin*에 걸리는 形容詞인데 *dəŋriyin* 앞에 오지 않고 語順이 바뀐 *dəŋriyin* 뒤에 오는가? Schmidt는 이것을 充分히 說明할 수 없었다. Schmidt에 이어 Banzarav가 여기 대한 研究를 發表한다. 그는 다른 곳에서 發見된 Uighur 文字牌子에서도 Minusinsk 牌子에서도 같이 *moŋk'a*가 2行에 있으며 그것도 1行과 3行보다 더 높게 세겨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 八思巴文字牌子는 Uighur 文字牌子的 書式을 그대로 踏襲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그리고 Mōngke 汗때의 Uighur 文字牌子가 「永遠한」을 意味하는 *moŋk'a*를 2行인 中央에 높게 配置하여 偶然히 綴字가 같은 Mōngke 汗에 대한 존경을 表示한 것이라라고 說明한다. 그리고 이 書式을 八思巴文字牌子가 踏襲한 것이다. Minusinsk 牌子에 대한 說明은 여기서 일단 完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實際로는 *moŋk'a*라는 八思巴字母의 綴字에 대해서 뒤에 여러 論議가 계속된다.

*moŋk'a*를 Avvakum이 나 Grigor'yev는 몽골帝國 第四代汗인 Mōngke 汗의 「Mōngke」로 誤解한 뒤 Schmidt나 Banzarov에 의해서 이것이 「永遠한」을 뜻하는 形容詞임을 正確하게 지적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永遠한」을 뜻하는 形容詞인 *mōngke*와 八思巴文字로 기록된 *moŋk'a*의 關係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形容詞인 *mōngke*와 汗名인 Mōngke의 音과 綴字가 同一하기 때문에 汗名에 대한 존경을 表示하기 위해서 形容詞 *mōngke*의 綴字를 故意로 바꾸어 *ö*를 *o*로 *e*를 *a*로 改作했다고 밖에 說明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봄으로서 八思巴字母로 된 *moŋk'a*의 二音節인 *-k'a*에 대한 說明이 可能해진다. *-k'a*의 *-k'*-는 *moŋ-*과 더불어 母音調和原則에 의해서 본다면 許容되지 않는 綴字이다. 이것을 說明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故意的인 改作 즉 *-k'e*의 *e*를 *a*로 바꾸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Nyuki 牌子에서는 *k*까지를 아에 *q*로 바꾸어서 *-qa*로 綴

字하고 있다. 이것은 故意的인 改作을 더 合理化시킨 것이라 하겠다. Kotwicz는 이러한 事實을 意識하지 못했기 때문에 母音調和에 忠實하게 -ke로 轉寫했다. 그러나 이것은 Poppe가 지적한 것처럼 容납되지 않는다. 첫째 八思巴字母綴字에서 子音 뒤에, 이 경우 -k'뒤에 母音を 表示하는 母音表示字母가 없는 경우에는 a를 補完하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이다. a以外的 母音を 表示할 때는 그 母音を 表示하는 字母가 後續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Minusinsk 牌子에는 -k'뒤에 아무런 母音表示字母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Poppe처럼 möngk'a로 읽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möngke의 ö와 e만을 o와 a로 고치고 -k-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母音調和에서 벗어난 이상한 形態인 möngk'a가 故意的으로 改作된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서만 möngk'a에 대한 合理的인 說明이 비로서 可能해진다.

八思巴字母에는 o를 表示하는데 두 가지 字母가 있다. 하나는 一般的으로 使用되는 ʌ이며 또 하나는 여기 대한 變種이라고도 할 수 있는 ʌ이다(中位形). 그런데 위의 möngk'a의 o는 바로 이 變種이라 할 수 있는 ʌ로 表記되고 있다. 여기 대해서 여러 學者들이 意見を 發表한 바 있다. Pelliot는 o와 u의 中間에 있는 特殊한 音を 表示하기 위해서 ʌ를 使用했다고 보는데 Vladimirtsov는 Pelliot의 影響 밑에 그의 理論을 더 發展시켜서 Khalkha 몽골語의 münx (永遼한)에 보이는 ü와 같은 母音이 있었으리라고 想定하고 이 *ö > ü의 音韻推移의 흔적을 八思巴字母에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音韻推移는 Khalkha 方言이나 다른 東部方言의 前母音이 例컨데 Oirat 方言의 ö나 ü보다 좀 더 後舌的이라고 보는 것이다.⁽³⁾ 여기 대해서 Poppe는 八思巴文字로 된 möngk'a를 文字 그대로 轉寫하지 말고 möngke와 같이 正確히 轉寫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本稿에서는 ʌ를 o로 表記하기로 한다). 여기 대한 두 가

(3) Ibid., p. 71.

지 理由를 들고 있다. Poppe 에 의하면 八思巴字母에 o 보다 좀 더 前舌的인 母音을 表示하는 文字가 果然 있었는지 회의적이며 否定的이다. 그리고 八思巴字母의 ㄱ과 ㄴ은 實際로 同一한 것이며 그 字母上의 差異는 다만 가운데 上下로 큰 線이 있을 따름인데 이 線은 여기 後續하는 子音表示字母를 達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o 와 若干 다른 偶然的인 變異音을 正確하게 音聲的으로 表記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의 理由는 ㄹ 라는 字母가 moṅk'a 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므로 Poppe 는 moṅk'a 를 文字 그대로 轉寫할 것이 아니라, 原몽골語대로 möngke 와 같이 轉寫해야 한다고 한다. (4) 따라서 moṅk'a 는 非正常的인 綴字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Poppe 의 moṅk'a 와 möngke 의 關係에 대한 이 說明은 여러 모로 首肯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ㄱ은 ㄴ 즉 o 와 ㄹ 에 대한 關係가 完全히 解決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ㄹ 라는 字母가 moṅk'a 한 낱말에서만 나타난다면 Poppe 의 主張은 無理 없이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實은 Ligeti 가 지적한 타와 같이 ㄹ 는 boḡdas, boḡju, noṃlarun, oḡdaqu, doroṃjilaqdasu, yongqor 등 다른 여러 낱말에도 나타난다. (5) 여기서 問題는 더욱 複雜해진다. Poppe 가 主張한대로 字母 ㄴ은 ㄱ의 變種에 不過한 것인가? 또 그것들은 다 같이 同一한 母音 o 을 表示하는 것일까? moṅk'a 가 Poppe 의 말대로 ㄹ 가 나타나는 唯一한 例라면 몰라도 Ligeti 가 지적한 위의 낱말들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Ligeti 가 지적한 위의 낱말들을 보면 母音調和 면에서 ㄹ 는 分明히 後母音系列에 속하며 Pelliot 가 主張한 ㄹ 가 o 와 u 의 間音이라는 것을 다시 想起하지 않을 수 없다. moṅk'a 에 關한限 Poppe 의 主張을 首肯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여러

(4) *Ibid.*, p. 72.

(5) L. Ligeti, *Trois notes l'écriture 'phags-pa*, AOH, XIII (1961), pp. 201-37.

낱말들을 볼 때 ㄸ와 ㅌ가 果然 同一한 ㅅ음을 表示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ㅌ가 後母音임은 Ligeti가 지적한 여러낱말에 의해서도 알 수 있으나 또한 中國語文獻에서도 證明된다. 八思巴文字의 中國語資料에는 ㅅ를 包含한 漢字가 많은데 蒙古字韻에서 몇 몇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團, 算, 亂

이들은 唐代 (618~907)에는 聲母가 모두 -uan이며 當代의 中國語音韻狀態를 보여주는 廣韻 (1008)에서는 「桓韻」에 속했다. 그런데 元代에 와서 中原音韻 (1324)에서는 韻母 -üon을 가진 「桓緩韻」을 形成한다. 즉 이들은 -uan에서 -üon으로 變化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八思巴字母로 漢字음을 表示한 蒙古字韻에 의하면 團, 算, 亂 등은 -on으로 表記되고 있으며 廣韻이나 中原音韻에 있던 glide sound인 -ü-가 보이지 않는다. 蒙古字韻은 當時의 杭州讀書音を 主로 反映한 韻書이며 中原音韻은 當時의 北方雅音은 基礎로 한 韻書이다.⁽⁶⁾

그러므로 唐代의 -uan이 元代에는 北方의 -üon과 浙江地方의 -on으로 變化했음을 말한다. 音聲學的으로 볼 때, 後舌開母音인 a가 後舌閉母音인 u에 끌려서, 中原音韻에서는 u를 保存하기 때문에, 「-üo가 되고 蒙古字韻에서는 u가 消滅했기 때문에 a와 o의 中間인 [ɔ]가 되었

(6) 蒙古字韻은 元의 大德元年(1297)에 이루어진 熊忠의 「古今韻會舉要」라는 韻書를 土臺로 하고 있으며 또 이 「古今韻會舉要」는 臨安 (現在의 杭州)에 移植된 汴京(現在의 開封)方言을 反映했으리라고 본다. 蒙古字韻의 音韻體系로 中原音韻의 그것과 큰 差異나 있는데 有聲의 聲母를 保存하고 있는 것과 入聲의 特殊한 殘存등이 特徵的이며 이 두 特色은 現代의 吳方言에 가깝다. 그러나 北方系의 要素도 없지 않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단히 複雜한 音韻體系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女眞人의 金의 壓迫을 받아 汴京에서 臨安으로 遷都했을 때, 臨安固有의 方言과 그 前까지의 首都이었던 汴京의 上層階級의 言語가 混合된 結果인 듯하다. 服部四郎, 元朝秘史의 蒙古語를 表はす漢字の研究, 東京, 1946, pp.53-55.

(7) M. Nakano, A Phonological Study in the 'Phags-pa Script and Meng-Ku Tzu-yün, Canberra, 1971, p.66.

다고 본다.⁽⁷⁾ 이 [ɔ]라는 後舌半開母字을 特히 表示하는 八思巴字母가 없었기 때문에 ʃ를 使用했을 可能性이 크다.

Minusinsk 牌子 등에 나타나는 *moŋk'a*는 이것이 實際로 *möŋke*와 同一한 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Poppe의 見解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漢字音 表記에서 보면 ɔ는 [o]가 아니라 [ɔ]일 可能性이 크다. 또한 Ligeti가 지적한 *moŋk'a* 以外の 여러 낱말에서도 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몽골어음을 表示하는 ʃ와 ʃ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 앞으로의 한 課題가 있다.

2.

몽골어 음운사에서 近來 提起된 重要な 問題의 하나로 原始몽골어에 있어서의 長母音에 관한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從來는 原始몽골어에 있어서의 長母音의 存在를 否認하고 그것을 後世의 二次的 發達로 보아 왔다. 그러나 近來 原始몽골어에 있어서의 長母音의 存在 可能性이 몇몇 學者에 의해서 議論되기 시작 했으며, 앞으로 더 詳細한 考證이 必要하나, 그 存在 可能性이 認定되는 方向으로 기우러지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다음에 그들의 研究結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⁸⁾

原始몽골어에 있어서의 一次的 長母音에 관해서 最初로 言及한 것은 Räsänen이다.⁽⁹⁾ *Tü. kök*~*Mo.Köke*의 比較에서 몽골어에 있는 語末音 -e가 터어키어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消失하면서 그 앞에 있는 ö母音이 長母音化했다고 보는 바와 같이, 터어키어의 長母音을 賠償延長으

(8) S. Murayama, Die Entwicklung der Theorie von den Primären langen Vokalen in Mongolischen, (Mongolian Studies, edited by Louis Ligeti, Amsterdam, 1970, pp.359-370).

(9) M. Räsänen, Materialien zur Lautgeschichte der Türksprachen, Helsinki, 1949, pp.68-69.

로 보았다. 그러나 Räsänen은 이 경우 터어키語의 長母音이 오히려 一次的인 것이며 몽골語에서는 短母音으로 變化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問題는 통구스語와의 比較研究에 의해서 解決될 것이라고 重大한 發言을 하고 있다. 具體적인 立證資料가 提示된 것은 아니었으나, 뒤의 研究에서 實際로 比較研究에 의해서 原始몽골語의 一次的 長母音이 推定되는 점으로 보아 Räsänen의 發言을 重要な 意義를 갖는다.

그後 野村正良은 Monguor 方言에서 一音節에 長母音이 있으며 이것이 다른 方言에서는 短母音에 對應하는 다음과 같은 例를 들었다. (10)

Mong. ja:ra 《Beule》	Mo. yara 《id.》
	Ord. jara 《id.》
Mong. o:li- 《finden》	Mo. ol- 《id.》
	Ord. ol- 《id.》
Mong. da:li- 《Schulter》	Mo. dalu- 《Schulterblatt》
	Ord. dalu 《Schulter》
Mong. fo:di 《Stern》	Mo. odun 《id.》
	M.Mo. hodun 《id.》
	Ord. udu 《id.》

이 경우 Monguor 方言의 一音節의 長母音은 다른 方言形과 比較해 볼 때, 두 母音의 收縮이나 혹은 賠償延長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重要な事實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 Monguor 方言의 長母音이 原始몽골語의 狀態를 그대로 保存하고 있다는 것을 明確히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뒤 그는 또 다시 注目할만한 論文을 發表했다. (11) 그는 여기서 Monguor 方言의 長母音이 터어키語와 통구스語의 그것과 一致하는 興味 있는 事實

(10) 野村正良, アルタイ語族における一種の母音交替につい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Vol. 4, 1953.

(11) 野村正良, モンゴル方言の長母音と原蒙古語に於ける長母音存在の可能性に就いて, 名古屋大學文學部十週年記念論集, 1959.

을 지적했다.

原始몽골어 *ā=Mong. ā

[例] Mong. bārdi- 《lutter, se mesurer à la lutte》

Cf. Ew. Bāддын 《gegenseitig schlagen》

Mong. jāra 《plaie, ulcère, abcès》 Mo. yara 《ulcère》.

Cf. Tkm. yār- 《to split》

原始몽골어 *ō=Mong. ō

[例] Mong. d'z'iōrgo- 《recontrer, avoir une entrevue, visiter》 Mo.

ǰolya- 《to meet》 Cf. Trkm. ǰōl-, Yak. sual 《Weg》

Mong. mōdi- 《bois, arbre Cf. Dagurisch mōd 《Baum》

Tung. mō 《Baum》

Mong. fōdi 《étoile》 Mo. odun, M.Mo. hodum 《id.》

Cf. Ew. ōsika 《id.》

Mong. ōli- 《devenir, être, pouvoir》 Mo. bol-《id.》

Cf. Ew. ō-, Lamut ōl- 《стать, etc.》

原始몽골어 *ū=Mong. ū

[例] Mong. d'z'iūri-《dessiner, écrire, peindre》 Mo. ǰiru- 《id.》

Cf. Ew. эюру 《обозначить, метить; чертить……》

原始몽골어 *ē=Mong. ē

[例] Mong. Kēji- 《ruminer》 Mo. Kēbi- 《id.》

Cf. Trkm. gāviše- 《wiederkauen》

原始몽골어 *ö=Mong. *ō > ē

[例] Mong. diēran 《quatre》 Mo. dōrt 《id.》 Cf. Trkm. dōrt, Yak.

tüörd 《id.》

이에 앞서 그는 Monguor 方言의 tiēge 《char, voiture, brouette》와 tumiēn 《10.000》 두 낱말에 注意를 끈다. 편서 Mcnguor 方言의 tiēre는

元朝秘史에서는 *tärgä(n)*으로, 또 中期몽골語로 記錄된 八思巴字文獻에서는 *t'erged* (複數形)로 나타나며 元朝秘史와 八思巴字文獻의 語形을 보면 *-Vr/gV-* (이 경우 *r/g < */g/*)의 收縮에서 비롯된 長母音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Monguor* 方言에서만은 *tierge* 과 같은 長母音이 보이는데 이것은 터어키語의 *Altai-Türk* 方言인 *tärgän* 《circl, wheel; cart, carriage》과 正確히 比較된다. 여기 대해서 *tumiën* (*Mo. tümen*)은 古代터어키語인 *tümän*과 一致하나 이 *tümän*은 *Gabain*에 의해서 印歐語인 토카라語의 *tmän* 과 現代페루샤語인 *tumän* 과 比較되었다. 여기 대해서 野村正良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터어키어나 몽골인들이 古代中央亞細亞와 接觸했던 한 印歐語에서 *Monguar* 方言의 *tumiën* 이 由來했음이 分明하다. 토카라語形은 問題의 *Monguor* 方言과 語形이나 意味가 거의 같다. 結論적으로 말하면 그 *Monguor* 方言形의 二音節에 있는 長母音 *iē*는 古印歐語의 二音節에 있는 強勢長母音을 가진 形態를 借用한 것이다. 그리고 *Monguor* 方言의 *iē*는 古代몽골語方言에서 借用된 後 前母音化한 一音節의 弱勢母音에 同化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첫例에서와 같이 原始몽골語의 一音節에 있어서의 長母音의 存在를 主認했을뿐만 아니라, 또한 다음 例에서와 같이 二音節에 있어서의 長母音에 관한 問題를 最初로 提起했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服部四郎와 *Poppe*가 같은 問題를 들고 나왔다. 먼저 服部四郎의 理論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服部四郎은⁽¹²⁾ *Poppe*의 意見에 異議를 提示한다. *Poppe*에 의하면⁽¹³⁾ 一音節에 있는 長母音은 特히 *Monguor* 方言에서 흔이 있는 現象인데 여기에는 一般的인 規則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즉 原來 短母音이던

(12) S. Hattori, *The Length of Vowels in Proto-Mongol*, (*Mongolian Studies*, edited by Louis Ligeti, Amsterdam, 1970, pp.181-193)

(13) N. Poppe,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Helsinki, 1955, p.74.

*a 와 *o 가 二音節의 *u 母音앞에서는 長母音化하고 또 原來의 *ö 는 二音節의 *ü 앞에서 長母音化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Poppe 의 規則性에 대해서 服部四郎은 그 規則性에 妥當性이 없다고 主張한다. 그것은 많은 例를 통해서 Monguor 方言에서 一音節의 長母音이 Poppe 가 말할 以外の 여러 環境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確認할 수 있기 때문에 Monguor 方言에서 一音節에 長母音이 나타나는 곳에 原始몽골語의 長母音을 再構하는 것이 正當하다고 結論을 내린다. 이렇게 해서 Monguor 方言의 tāwan 에 의해서 몽골祖語의 /*taabun/ 을 再構한다. 이 假說은 다른 論據에 의해서 強化할 수 있다. 즉 몽골文語의 tabin 《50》에 對應하는 Monguor 方言은 tayin 이다. 이때 一音節에 있는 母音이 짧지마는 그것은 오히려 몽골祖語의 長母音에 對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理由는 몽골祖語의 /*tabi/ 가 Monguor 方言에서는 tē- 《to put》(←*tabi-)에서 와 같이 tē가 되었다. 그런데 Monguor 方言의 《50》을 意味하는 語形이 이 tēn 아 니라, tayin 인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音韻變化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taabin/→tāwin→tāyin→tayin 《50》

/*tabi-/→tawi→tayi→tē- 《déposer》

그리고 여기 對應하는 Dagur 方言의 tāun 《5》도 이 假說에 대한 傍證이 된다. 또 한 이러한 例 以外에도 Dagur 方言의 mōd 《Baums》, öŋ 《Jahr》, dēlbür 《Mähne》 등에서도 몽골祖語의 長母音이 保存되어 있다.

服部四郎은 다음에 二音節에 있어서의 長母音에 關聯된 重要的 發言을 하고 있다. 그것은 -V+r/g+V- 의 分岐的 變化에 대한 原因 究明에서 出發한다. 그는 몽골文語의 -V+r/g+V- 가 現代諸方言에서 -r/g- 의 消滅로 長母音化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두가지 分岐的 變化에 관해서 이것을 古代몽골語에 있어서의 액센트의 差異를 假定함으로써 說明하려고 하는 Vladimirtsov 說을 批判한다. Vladimirtsov 說에 의하면 úlayàn>Kh.

/ʰulaan/ 《red》, qálayùn > Kh. /xaluuN/ 《hot》와 같이 -ɣ-가 消滅하는데 대해서, únayan > Kh. /ʰunagaN/ 《slave》, ničiiigün > Kh. /nüc(ä)gän/에서는 이 部類의 낱말들이 特殊한 意味의 語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日常生活에서 使用頻度가 높기 때문에 問題의 音節에는 第二強勢가 없어졌기 때문에 母音間의 그 子音이 脫落하지 않았다고 說明한다. 그러나 몽골語의 여러 方言에서 역센트와 意味的인 對立의 存在가 不明確한 것이라 하여 Vladimirtsov 說을 否認한다. 여기 대해서 그는 그는 몽골語方言에는 長母音과 短母音의 音韻的對立이 있기 때문에 그 分岐的 變化의 原因이 問題의 音韻 */g/에 後續하는 母音의 길이의 差異에 의할 蒸然性이 크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二音節이나 그 以後의 音節에 있는 長母音은 같은 位置에 있는 短母音보다 더 強하고 明確하게 發音되기 때문에, 그 先行音韻인 */g/가 弱化되었으리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變化段階를 假定한다.

- (1) [gV]/gV/ [VgV:]/VgVV/
- (2) [gV]/gV/ [VᵛV:]/VgVV/
- (3) [gV]/gV/ [VᵃV:]/VgVV/
- (4) [gV]/gV/ [V'V:]/V'VV/
- (5) [gV]/gV/ [V:]/VV/

다음에 原始몽골에서 短母音과 長母音의 音韻的 對立이 비단 */g/뒤에서만 아니라, 모든 位置에서 도 나타나는 것이 證明된다면 위에 말한 分岐的 變化의 假定은 그 蒸然性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一音節에서와 같이 Monguor 方言의 語形에 의해서 一音節 以外의 音節에서 몽골祖語의 長母音을 再構하기는 困難하다고 한다. 그것은 여러가지 原因에 의해서 非初音節에서는 이位置에서는 Monguor 方言의 母音이 長母音化하거나 또는 短母音化한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二音節에서 Monguor 方言의 長母音이 몽골祖語의 長母音을 反映하는 것으로

로 생각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Mo. *ele-* : Mong. *iliē-* 《s' user》

Mo. *qata-* : Mong. *xadā-* 《devenir dur》

Poppe도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1955)까지는 다른 學者들처럼 原始몽골어에 있어서의 長母音を 認定하지 않았으나 뒤에는 이를 認定하기에 이른다. 服部四郎의 研究와 때를 같이 해서 Poppe는 非初音節에 있어서의 一次的 長母音에 관한 興味 있는 論文을 發表했다. (14) 그도 $-V+r/g+V-$ 의 分岐的 變化原因을 究明하면서 Vladimirtsov의 說을 批判한다. Vladimirtsov에 의하면 다른 部族보다 먼저 遊牧民이 된 몽골部族에서는 母音間의 $*r/g$ 가 消滅한데 대해서 狩獵民의 狀態에 있던 部族은 母音間의 그 子音を 그대로 維持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母音間의 그 子音 消滅이 狩獵生濟에서 遊牧生活로의 移行結果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音韻變化의 過程에 대한 說明은 言語 그 自體에서 探求되어야 한다고 強調한다. Poppe의 研究上의 特徵은 通古스語의 한 方言인 Solon語와의 比較에서 같은 問題를 解決하려는데 있다. $-g-$ 를 維持하고 있는 現代몽골語의 方言語形과 $*r/g$ 가 消滅한 語形을 Solon語의 그것과 比較해보면 다음과 같은 結果가 나타난다. Solon語의 長母音의 位置에 該當하는 몽골語의 母音 앞에서는 그 子音が 消滅한데 대해서, Solon語의 短母音의 位置에 該當하는 몽골語의 母音 앞에서는 保存되어 있다. 한 예를 보면, Mo. *imarγn*=Kh. *yamā*=Sol. *imayāā* (goat)에서는 Solon語의 長母音 *ā*에 對應하는 몽골語의 母音 *a*에 先行하는 $-r-$ 가 消滅한다. 여기 대해서 Mo. *buγu*=Kh. *buge*=Sol. *boγo* 《stag》에서는 Solon語에서 $-r-$ 에 後續하는 母音이 짧기 때문에 몽골語에서 그 子音が 保存되어 있다. 따라서 前者의 경우에는 몽골語에

(14) On the Velar Stops in Intervocalic Position in Mongolian, UAJ. Bd. 31, 1959.

서 -r- 뒤에 長母音을, 그리고 後者의 경우에는 短母音을 再構하게 된다. 이와 같이 問題의 子音의 消滅 또는 保存은 全적으로 後續母音의 起源的 長短에 의하는 것이라 하겠다. Poppe는 또한 強位置 (strong position)과 弱位置(weak position)을 區別하고, 前者는 */g/가 保存되어 있는 位置를, 그리고 後者는 長母音 또는 原來 強勢가 있던 母音 앞의 位置를 말한다. 그리고 弱位置에 있는 子音 */g/는 摩擦音 (*r)로 變化했다가 뒤에 다시 消滅했다고 보고 摩擦音인 *r는 古代몽골語에는 存在했으나 中期몽골語에서는 消滅했다고 한다. 以上과 같이 Poppe도 服部 四郎과 같은 結論을 보여주고 있으나, 前者가 外的 比較에 의한 것이라면, 後者는 內的 比較에 의한 差異가 있다. 그러나 外的 比較라 할지라도 Solon語와의 比較만이 아니라 Turkman, Yakut, Ewenki, 등 터어키語나 통구스語와의 比較에까지 擴大되어야 할 것이다. Poppe는 그뒤 Monguor方言과 Dagur方言과의 比較에 의해서 몽골語에 있어서의 一次的 長母音에 注意를 끈 바도 있다. (15)

(Zirni Manuscript) tābun=Mong. t'āwen=Dag. t'āup 《five》

(Zirni Manuscript) dālū 《scapula》=Mong. Dālī 《id.》=Turkman yāl 《mane》

(Zirni Manuscript) čāsun=Mong. t's' iāse 《snow》

Poppe는 그뒤 같은 問題에 대해서 계속 論議한 바 있다. (16)

Ligeti는 Mogol方言에 있어서의 長母音에 관한 重要的 論文을 發表한 바 있다. (17)

(15) N. Poppe, Preliminary Remarks on the Zirni Manuscript. The Manuscript. A Persian-Mongolian Glossary and Grammas by S. Jwamura, Kyoto, 1961.

(16) N. Poppe, The Primary Long Vowels in Mongolian, JSFOu 63, (1962).
N. Poppe, On the Long Vowels in Common Mongolian, JSFOu 68, (1967).

(17) L. Ligeti, Les voyelles longues en Moghol, Acta Orientalia Hung, T. XVII, Fase, 1, 1964.

이것은 Mogol 方言에서 모든 音節에 一次的인 長母音이 保存되어 있는 것을 立證한 것으로서 近來의 몽골語學에서 가장 重要的 研究의 하나이다. Mogol 方言에서 長母音이 모든 音節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Khalkha, Kalmuck, Buriat 등 大部分의 方言에서 短母音에 對應하며 이것은 Ramstedt의 Mogol 語에 관한 研究에서 볼 수 있다.⁽¹⁸⁾ Ramstedt 自身은 勿論 여기 대한 調査를 한 바 없다. Ligeti가 最初로 Mogol 方言의 長母音에 注意했던 것이다. 이것은 Monguor 方言에 있어서의 長母音에 관한 研究와 같이 原始몽골語의 長母音을 推定하는데 있어 重要的 役割을 한다. 周知의 事實이지만 Mogol 方言은 大體로 中期몽골語의 狀態에 있다. 그러므로 Mogol 方言에 長母音이 保存되어 있다면 또한 中期몽골語에서도 長母音을 어느 程度 發見할 수 있는법 하다. 이렇게 해서 中期몽골語에 속하는 重要的 資料인 元朝秘史에 注意를 돌리게 된 것이 村山七郎이다.⁽¹⁹⁾

그는 새로운 假說을 提示했다. 즉 元朝秘史에서 몽골語음을 轉寫한 漢字인 「朶」는 長母音을 가진 音節 dō/dö을, 그리고 「多」는 短母音을 가진 音節 do/dö를 各各 轉寫한 것이라고 推論한다. 이것은 위에서言及한 바와 같이 原始몽골語의 長母音說에 關聯해서 注目할만한 것이다. 元朝秘史에서 이와 같이 長母音과 短母音에 대한 漢字의 區別이 다른 母音에 관해서도 體系的으로 發見된다면, 즉 長短母音을 區別하는 漢字群이 모든 母音에 걸쳐 發見된다면 中期몽골語에 長母音이 存在했을 可能性이 實證될것이다. 그러나 元朝秘史에 모든 長短 母音을 轉寫하는 漢字가 區別되어 使用되고 있음을 現在로선 알 수 없으며 또한 「朶」와 「多」도 반드시 長母音과 短母音에 一致하는 것은 아니지만 村山七郎은 「朶」에 관한 다음과 같은 例를 들고 있다.

(18) G.J. Ramstedt, *Mogholica*, JSFOu 23, 1906.

(19) S. Murayama, *op. cit.*, pp. 365-369.

- dōlo'an 《sieben》 Mong. dālān 《sept》
Zirni, dolon (dālān으로 읽는다).
- dörben (dörben) 《4》 Mo. dörben, O.Mo. *dörbēn 《id.》
Mong. Diēran 《id.》
Yak, tüört < *tort 《id.》
Trkm. dōrt 《id.》
- dōro 《unten》 Mo. doora < *dōrā 《below, underneath》
Mong. Dōro 《below, underneath》
Dag. dōrāyūr 《along the lower part》
Mog. dārā 《below, underneath》
- dōte (dōte) (華夷澤語) 《direkter Weg》 Cf. Ew. əýmā 《naher,
direkter Weg (durch das Kap)》
- dōtele 《den geradesten, Vgl. Ew. əýmā 《den directen kürzesten
Weg gehen》 Weg gehen》
- dōtoqa 《Türfront》 Mo. dotora < O.Mo. dōtarā 《inside》
- dōtona 《im Innern》 Stem *dōta, Mong. t'uDor 《inside》
- dōtore 《innen》 Ew. dō(n) 《inside, interior》, dōlā 《within》,
dōyū 《internal》, dōndu 《in》.

위에서 原始몽골語의 長母音에 관한 研究를 간단히 考察했는데, 이 問題는 앞으로 Monguor 方言이나 Mogol 方言 또는 Dagur 方言 등 여러 方言에 대한 더 精밀한 研究와 더불어 터어키語, 퉁구스語 등과의 比較 研究가 더 積極的으로 行해짐으로 모든 音節에 있어서의 長母音 問題가 解決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研究에서만 해도 原始몽골語에 있어서의 長母音의 存在 可能性을 認定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